



6면

'스마트팜 최적 환경 조건 알람 가능' 인공지능 기술 개발·플랫폼 구축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음 2월 5일) 제2738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30곳 운영

도교육청, 2025년 도입 위해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추진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일반고에서 전면 시행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8억여원의 추경이 통과되면 전주, 군산, 익산 등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및 교육소외지구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협력업체 구축을 통한 고교교육 내실화 지원 ▲단위학교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공동교육과정 개설 여건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교육소외지역 교원 역량강화 지원 및 고교학점제 홍보 확산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30개교를 지정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우선 준비하는 학교 30개교를 지정,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학교단위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추진한다.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다양화 경험을 축적해 일반 학교로의 확산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 예측되는 제도 개선 사항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학점제 도입기반조성 사



시원한 물줄기와 푸른 하늘

원연한 봄 날씨가 이어진 16일 전북대학교 문화루 분수대에서 시원하게 분수가 나오고 있다.

업을 바탕으로 2019년 6개교, 2020년 12개교, 2021년 30개교 등 지속적으로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를 확대해 왔으며, 2024년까지 도내 96개 일반고교 전체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중점 운영 과제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학생 수업 및 평가 내실화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 등을 설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1년도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에 7억5,000만원, 고교학점제 환경조성 지원에 39억3,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학점제가 단순 제도로 이해되기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새로운 인재상을 만들어 내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학교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되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지원 등을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다

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학점제란 학생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다.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를 운영, 지난해에는 전체 마이스터고로 고교학점제를 확대했다.

내년에는 이를 전체 특성화고에, 오는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장은성 기자

"KT&G 백복인 사장 재연임 파렴치한 처사"

민주 김수홍 의원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원인 제공자로 주민 무시" 반대 표명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은 "익산 장점마을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KT&G 백복인 사장의 재연임 추진은 대한민국 국민과 장점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백 사장의 재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KT&G 사장추천위는 현 백복인 사장을 단수로 사장 후보로 추천했으며,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백 사장의 재연임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점마을을 피해주민들과 익산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백사장의 재연임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백 사장의 재연임을 막겠다"고 나서 등 지역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KT&G가 제공한 연초박(담배찌꺼기)으로 약 20여명이 사망하고

현재 20여 명이 암치료 중인 상황인데도 KT&G와 백복인 사장은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백 사장은 지난해 한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글로벌 쪽에 있어서 잘 모른다", "TSNA(발암물질)를 처음 들어봤다",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치를 받았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참사로 시름에 빠진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복인 사장이 아무런 사과 없이 연임될 경우 피해 주민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악덕 기업주이자 파렴치범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촛불을 들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는 등 협박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KT&G 백 사장의 철저한 무대응에 국회 차원에서도 사과 요구가 터져나왔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위원석 의원은 장점마을을 찾아 KT&G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유호성 기자

전기차 전장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 본격

전북도는 올해 새롭게 신설한 '전기자동차 전장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17일부터 4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장부품기업 대상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사업을 마련한 것이다.

13개 과제 총 3억원... 도, 참여기업 오늘부터 신청접수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장부품 연구개발(R&D, 3건)'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BI&RD, 10건)' 13개 과제, 총 3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지원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은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전북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필요한 구동계, 안전계, 편의계 및 공동플랫폼 등 기술개발에 적합한 과제를 자유롭게 신청받아 지원한다.

더불어, 다양한 시장의 기술수요에 기반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아이템 발굴을 위한 기술로드맵 작성 및 기술 컨설팅 지원 등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R&D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장부품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술코디네이터(전문자문) 협업도 지원하며, 사업의 기술적 특성, 시장현황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병승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최근 미래차 산업으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부품기업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준비 순조

조직위, 26개 종목단체와 간담회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에 따르면 16일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주관단체인 전북도 26개 종목단체 사무국장(전무이사)과의 간담회를 열고, 기간 추진 상황에 따른 설명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사진 5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회 참가자 등록비 안내 ▲대회 운영부담금 시·

군 소통 협조 ▲도내 종목별 참가선수 쿼터제 모집 협조 ▲종목별 요강 작성 협조 ▲경기운영 효율화를 위한 분야별 협조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지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강호 사무총장은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성공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종목단체 사무국장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경기 진행 프로그램의 수립하는데 있어 씨줄과 날줄의 촘촘함을 빈틈없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